

# Ceramic Art 2019

CICA Museum

September 20 - October 6, 2019

2019. 9.20 - 10.6

##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Soyoung Lee 이소영, Shinyoung Park 박신영, Somin Rim 임소민, Jaekyung Shin 신재경, Eunjung Suh 서은정, AU Ho Lam Suzanne

### 1. Soyoung Lee 이소영

#### “가시벽” (2018)

<가시벽>은 주체를 위협하는 일상적 공간을 표현한 작업이다. 벽에서 돌아난 가시는 이질적인 정체성을 지닌 주체를 향한 억압을 상징한다. 나는 문득 마주치는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느낀 감정을 토대로 주체에게 요구되는 정체성과 주체가 서로 어우러지지 않는 순간에 조성되는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체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나 항상 집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게 되는 벽장 또는 액자처럼 평온하다. 가시벽을 마주하며 주체가 느끼는 공포는 평범을 가장한 사회의 질서들에 익숙해지고 그에 잠식당한 주체의 무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불편감에서 촉발되는 것이다. 주체에게 행해지고 있는 억압은 일상 속에 있다. 돌아나 있는 가시를 주체가 인식하는 순간 일상은 전복되고 주체가 믿어온 풍경과 자신에 대한 의미를 재탐색하게 한다.

작품은 약 1000여개의 가시와 80여개의 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일과 가시의 초기 형태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캐스팅 방식으로 제작되었지만 가시의 경우, 조각하듯 하나씩 작업자의 손으로 깎고 사포질을 하여 나무가시 같은 형태를 완성하였다. 효율적이지 못한 작업방식을 고수한 것은 가시를 대하는 주체의 마음가짐과 관련되어 있다.

#### Soyoung Lee 이소영

나는 학생, 직장인, 여성, 딸, 누군가의 연인 등 여러 가지 정체성을 오가며 순수한 나 자신의 상태를 칭하는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왔다. 나는 여성성의 의미를 해체하고 확장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박을 주체적으로 대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김세종 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마쳤으며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2. Shinyoung Park 박신영

#### “At the Night Burning the Head of Cow” (2019)

나는 고통이나 죽음을 승화시키는 의식과 문화에 매료되었고, 그것을 개인적인 형태로 표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소의 머리를 태우던 밤>은 그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소는 내가 슬픔이나 고통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이다. 이 작품에는 모로코를 여행할 때, 사막에서 죽은 낙타를 보고 주민과 나는 대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모든 것은 사막으로 돌아가듯이, 슬픔과 고통의 승화, 그리고 자연으로의 회귀를 표현하고 있다.

I am fascinated by ceremonies of sublimating one's sorrow and pain. And I try to interpret the scenes as a personal myth. The artwork titled, At the Night Burning the Head of a Cow, is the case in point. A cow is my visual metaphor of sorrow and pain. For this work, I was inspired by a dialogue with a guy, seeing a dead camel in the Sahara. It shows the sublimation of human suffering and return to ashes like the saying of 'Things return to the desert.'

#### Shinyoung Park 박신영

나는 어떤 특정한 순간 속에 담긴 현상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린시절 사진가였던 아버지가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시는 모습을 관찰한 경험에서 출발한다. 나는 암실의 어두컴컴한 공간 속 한 줄기 빛처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포착한 결과로 이미지가 생겨난다고 믿게 되었다. 최근 나는 낯선 문화나 장소를 여행하면서 발견한 이미지들을 상상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여행은 나의 기존 가치관과 새로운 요소들이 만나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I focus on dialling essence by capturing certain moments. Growing up watching my father developed photos in the dark room, I learned that an image is a delicate vehicle to visualize something invisible, unperceivable with insight. In the dark, a ray of light is registered as an image. It appeared as though through the rigorous development of a photograph, the essence of life was realized in a way in which we could relate. Recently, I create images with imagination which are found at different cultures and places. Traveling enables me to feel the flux of existence. Through travels, new surroundings mix with my previous experience, crossing cultural borderlines. A scene is created by morphing them with imagination.

### 3. Somin Rim 입소민

“Hogtie me up” (2019)

“Hogtie me up” (2019)

“Hogtie me up” (2019)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다는 나에게 애인이 말했다.

“햄버거 같은 것 말고 좀 잘 챙겨먹지.” 왜? 난 맛있게 먹었는데.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는 애인에게 내가 말했다.

“왜 그렇게 부실하게 먹었어.” 왜? 난 완전 배부른데.

<Hogtie me up> 시리즈는 ‘이 시대의 자린고비’ 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한다.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반찬 삼아 쳐다보며 밥을 먹었다는 지독한 구두쇠 자린고비. 햄버거와 샌드위치는 “부실하게 먹지 말고 잘 챙겨먹어야 해” 라는 나와 애인의 반응처럼, 빠르고 간편하며 어딘가 부실하다 여겨지는 음식들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러한 음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주 자주 놓이게 된다. 3800원짜리 햄버거와 2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자린고비의 굴비처럼 반찬 삼고, 위안 삼는다.

#### Somin Rim 입소민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을 투영한 캐릭터를 손으로 빚어 내고 이를 설치,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한다. 현실 속 괴로움을 즐거운 시각양식으로 표현하고 그 괴로움을 전복시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폴리머클레이를 주재료로 사용하며, 손으로 빚어낸 입체물을 특정한 연출 속에 위치시킨다. 이는 현실 속 괴로움을 전복시키고 즐거운 괴로움, 괴로운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내 삶에 위로가 되었 듯, 세상 속에서 닳아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사진 속 캐릭터들을 통해 작은 재미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4. Jaekyung Shin 신재경

“이중용기 (Double using container)” (2018)

Series of container

white and colored porcelain, slip-casting, transform, 1260°C oxidation firing

그릇은 무언가를 담아내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몸통은 전체적인 형태를 보여주며 기능적인 역할을 해주고, 굽은 지면에서 몸통을 들어 올려주며 심미적 기능과 더불어 형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또한 전은 형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즉, 그릇은 쓰임에 따라 몸통의 깊이, 넓이가 다양해지고 굽의 높이가 다양해진다.

기존의 용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르게 보는 작가의 용기를 통한 공예상품이 가지게 되는 방향에 대한 연구 과정을 담고있다. 각각의 단일체를 제작하고 그것들을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와 쓰임을 제시하는 이중으로 사용가능한 용기를 만드는 실험을 하였다. 용기는 무언가를 담는 수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공예품은 작품으로써 우리의 공간에 어우러지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container)를 제안하기위해 기존의 그릇들의 형태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형적인 형식의 틀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중에서도 고귀하고 의식적인 높은 용기의 특징을 살려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그 높이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다른 요소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피를 부풀릴 수 있는 이중기(double walled) 기법으로 제작된 도자용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제작된 단일체들을 서로 맞대어 붙이는 방식으로 위와 아래가 상호교환이 되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성형과정에서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시각적인 높낮이를

주고자 하였다. 단일체들은 서로 색과, 표현기법, 높이, 크기를 달리하여 결합 되었을때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용기는 기존의 용기들이 물체가 담아두는 역할을 충실히하지만, 담기지 않았을때는 오브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같은 형태의 물건이 생산되는 사회속에 공예품이 가지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 Double walled container

Based on the double using container that understands the basic elements of existing containers and sees them differently, this artwork explores the orientation of craft items. By making each monolith and combining them, the artist experimented with creating a double walled container that suggested new forms and uses. Compared to a container with a passive purpose of containing something, a craft item has a proactive attitude that blends into our space as an artwork. The study process of the artwork was largely classified into understanding, determining, and expressing. Each of the process is as follows.

- Understanding: Being fully aware of the existing theoretical understandings of a container and selecting a main theory at work.
- Determining: determining the appropriate molding methods and techniques for the artwork and processing design
- Expressing: Finding a shape through the combination of units and contemplating the decoration of the surface of the container.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types of containers to propose a new container and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 typical form frame. Among them,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all container which is dignified and ritualized, the artist tried to make a ceramic container using a double walled technique to expand the volume, rather than adding other elements to determine the height. The artist produced a shape in which the upper and lower parts are mutually exchanged by attaching the created monoliths to each other. Also, the artist adjusted the height freely to give visual height gaps. Because of their different colors, presentation techniques, heights, and sizes, the monoliths exhibited various forms when combined. Although these containers satisfy the primary role of holding contents like regular containers, they also act as objects without contents. Therefore, the artist aimed to reflect on the orientation of craftwork in the society where the same type of objects are manufactured.

#### Jaekyung Shin 신재경

오브제는 공간을 돋보이게 해주기도 하고, 스며들기도 하며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작가 신재경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캐스팅 작업의 특성상 반복하거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서정적인 텍스처를 입힌 작업을 한다. 즉 따뜻한 기하학이 작가의 작업의 전반적인 모토이다.

## 5. Eunjung Suh 서은정

### “Untitled” (2019)

이번 도자 작업은 여러 나라의 도자 유물로 부터 받은 영감으로 시작된다. 나는 과거에 토기와 도자기들이 주로 영적인 치유나 소원을 기리는 제사 의식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흥미를 느낀다. 이러한 도자의 주술적 매개체의 형식을 빌려 나만의 내러티브를 만든다. 주로 그것들은 인간의 동물성, 원시성에 관한 이야기로, 유머를 이용해 보다 친근한 말투로 승화된 도자 형태로 보여주길 의도 한다.

서은정은 주로 의식적으로 표용하기 힘든 인간의 심리적 그림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형상화 하는 작업을 한다. 인간의 연약함, 잔인함, 부조리함 등 소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모든 것들은 유머와 뒤섞여 관객들이 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그녀의 작업에 드러난다. 작업은 주로 드로잉에서 시작한 판화와 세라믹을 중심으로 작업한다. 작업 과정 중 일어나는 우연적 효과를 적극 수용하며 보다 더 원시적인 결과를 유도하기도 한다.

## **6. AU Ho Lam Suzanne**

### **“Tranceramics Orbs” (2019)**

The orbs and the energy in the object, integrates porcelain into the nature, akin to the fibrous system, connecting sensory nerves in a state. Energy enables the deepest and most dominant subconscious thoughts to be expressed, revealing the hidden perspectives and feeling with a self-evident natural inclination through the rhythm of objects and the elements vibration from that moment on. Through the creation process to manifest the expression of the human power and reveal ceramic's own contemporary uniqueness and the spirit of art.

**AU Ho Lam, Suzanne** was born in Hong Kong. She is a ceramist and a spiritual healer. Suzanne's creativity integrates ceramics, crafts and materials as the minimal state between nature and human. Materials enable her to associate sensibility towards people and nature.